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제74년 36호

창조절 둘째 주일

2019년 9월 8일

예배시간 1부 09:30

2부 11:30

사유 | 이춘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장충동 1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전주

주께로 오라, 말씀하신다(D. Buxtehude) 1부 오르가니스트: 채문경 권사
2부 오르가니스트: 신재우 집사

모임

(*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한 분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모임찬송

67장(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다함께

*예배부름

목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엡 4:6),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회 중: 아멘.

*송영

성가대

*시편교독

목 사: 주님, 주님께서 나를 살살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회 중: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목 사: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회 중: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목 사: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회 중: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목 사: 하나님, 나를 살살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회 중: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시 139:1-6, 23-24).

경배찬송

531장(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다함께

죄의 고백

목 사: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회 중: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 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응답송

목 사: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기에(시 145:8-9),
회 중: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목 사: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
옵소서(렘 31:34).
회 중: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경동찬송 36장) 다함께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나이다

침묵의 기도

다함께

용서의 선언

목 사: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는(욥 2:12),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의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응답송

회 중: 아멘.
할렐루야(경동찬송 50장 Ⅱ) 다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2번)

말씀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서 18:1-11 1부: 계세협 집사
2부: 양정녕 집사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레
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
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
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과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
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
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
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
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
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
둔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

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응답송

205장(주 예수 크신 사랑) 후렴 **다함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서신의 말씀

빌레몬서 1:17-21 **1부: 유도희 집사**
2부: 박주일 집사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 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응답송

205장(주 예수 크신 사랑) 후렴 **다함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복음의 말씀**

누가복음서 14:25-33 **목사**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나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만 명으로 당해 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 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응답송**

205장(주 예수 크신 사랑) 후렴 **다함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친교와 소식

..... **목사**

기도		고순희 장로
응답송		성가대
찬양	위대하셔라 주님의 이름(Herman von Berge)	1부 성가대
		지휘: 정록기 집사
	내 평생에 가는 길(John M. Rasley)	2부 성가대
		지휘: 김경원 집사
설교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채수일 목사
기도		설교자

보냄

봉헌과 찬송	347장(허락하신 새 땅에)	다함께
*봉헌기도		목사
*보냄찬송	635장(하늘에 계신)	다함께
*축도		목사
*송영		성가대
후주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W. L. Thompson)	1부 오르가니스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W. A. Mozart)	2부 오르가니스트

『경동찬송』은 찬송가 뒷편에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거나 교회생활에 대한 문의를 원하시면 새교우 등록실(친교실 옆)을 방문해 주십시오.

1. 교우소식

- ▶장례: 故 박일효 성도(향년 95세, 신민경 교우·이재형 집사 조모, 8월 30일(금) 소천, 9월 2일(월) 발인)
- ▶출산: 신유섭 교우·안미영 교우(신승우(아들), 8월 17일(토))
- ▶출판: 임연철 집사(『이야기 사애리시-유관순 열사 신앙의 어머니, 충청 선교의 개척자』, 신앙과지성사 출판)
- ▶출국: 최선 집사(8일(주일), 터키)
- ▶대접: 강신재 집사·함천진 장로(장례 감사)

2. 기도회

- ▶화요일아침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소예배실

3. 모임

- ▶권사회: 오늘(8일) 1부 예배 후 소예배실
- ▶드보라2사회: 오늘(8일) 1부 예배 후 당회실
- ▶루디아1사회: 오늘(8일) 1부 예배 후 여신도실
- ▶에스더1·2사회: 오늘(8일) 1부 예배 후 어린이집
- ▶중우회: 오늘(8일) 1부 예배 후 교육관 203호
- ▶청우회: 오늘(8일) 1부 예배 후 교육관 206호
- ▶여신도성가대: 11일(수) 오후 6시 소예배실
- ▶노아콰이어: 11일(수) 오후 6시 30분 성가대실
- ▶마리아1사회: 다음 주일(15일) 1부 예배 후 203호
- ▶마리아2사회: 다음 주일(15일) 1부 예배 후 여신도실
- ▶드보라1사회: 다음 주일(15일) 1부 예배 후 당회실
- ▶장년회: 다음 주일(15일) 1부 예배 후 소예배실(특강: “한일관계와 경제”,
강사: 민계식 집사)

4. 2019년도 한가위감사주일 예배 안내

- ▶일시: 22일(주일) 1, 2부 예배
- ▶축제: 1부 예배 후 유치부 감사찬양(교회 마당)
감사고백 1부—중고등부, 2부—어린이부
1, 2부 예배 후 공동식사

5. 새교우교육 안내

- ▶대상: 2019년 5-8월 예비등록자
- ▶일시와 장소: 오늘(8일) 오후 1시 30분 교육관 203호
- ▶주관: 새교우위원회(위원장: 심정기 집사)

6. 경동 공부동아리 인도자 모임

- ▶일시와 장소: 오늘(8일) 오후 1시 30분 경동갤러리카페
(고전 명작 읽기, 과학과 종교, 기독교 사상, 역사문화탐방, 영상 동아리, 영어성경 공부, 함께하자 건축 즐기기)

7. 구역장 및 구역인도자 모임

- ▶구역장 모임: 10일(화) 오전 11시 소예배실
- ▶구역인도자 모임: 11일(수) 오후 6시 당회실

8. 제3기 죽음학교: ‘홀로 걷는 길’ 안내

- ▶1회: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한인철 교수(연세대학교) 22일(주일) 오후 1시 30분 교육관 203호
- ▶2회: “존엄한 죽음, 아름다운 마무리” 유경 선생(사회복지사) 29일(주일) 오후 1시 30분 교육관 203호

- ▶3회: “삶과 죽음” 김여환 호스피스 10월 6일(주일) 오후 1시 30분 교육관 203호
- ▶4회: “드라마로 구성하는 나의 유언장: 내가 남기고 싶은 것” 최지영 박사(예술 교육감독) 10월 20일(주일) 오후 1시 30분 교육관 203호
- ▶주관: 신도교육위원회(위원장: 김원희 집사)

9. 손쉬운 경동스마트폰 사용법 안내

- ▶기간: 10월 27일(주일)까지(*이후는 미디어실 방문 요청)
- ▶시간과 장소: 1부 예배 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친교실(유리방)
- ▶주관: 미디어선교위원회(위원장: 김호 집사)

10. 여신도성가대원 모집

- ▶문의: 안수경 권사(010-2840-0166)

11. 다음 주일(9월 15일) 예배 위원

기도	성경봉독		수요기도(9월 18일)	
조규곤 장로	1부	안인균 집사 · 이현복 집사	아침	정숙휘 집사
	2부	김문식 집사 · 공순복 집사	저녁	이재학 집사

특별봉헌 9월 1일

감사헌금: 강신재 · 함천진(장례 감사), 광민혜(이직), 김관수 · 양순희(범사), 김동준(8월 무사히 마침), 김병태 · 김수미(친구들과 복된 여행), 김봉희(감사), 김선양 · 김정희(감사), 김성식 · 김원희(승리의 길로 인도해주심), 김수평 · 임문규(범사), 김순옥(감사), 김순화(손녀 주심), 김정후 · 김성은(감사), 김진욱 · 여정성(수원 졸업), 노순애(감사), 노정호 · 이향미(감사), 류원정 · 양혜린(감사), 박성호 · 도주희(선교), 박연길(십일조), 박재준 · 박소영(아버지 1주기 추모), 박재하 · 이가희(박승진 훈련, 임기 마침), 방효정(예비하신 새 직장으로 인도), 심영자(크신 은혜), 양정녕 · 박주일(양재운 장학금), 윤성진(둘째 외손녀 출산), 이강태 · 김길엽(감사), 이민준(졸업), 이주연, 이기연(새 직분, 새 학기 주님의 은혜), 이호준 · 이원우(늘 함께 하심), 임명자(건강 지켜주심), 임연건 · 원정혜(졸업 감사), 장현순(감사), 정란경(십일조, 두 아이 등록), 최봉덕(둘째 손자 건강하게 태어남), 최영철 · 김애련(새로운 직장주심), 최정옥(박민성 공군입대), 최자웅 · 허선(감사), 채수일 · 김경숙(범사 감사), 한현옥(감사), 홍수화(십일조), 무기명(감사)

지정헌금: 김병태 · 김수미(탈북자지원), 익명(냉난방교체)

예배와 집회 안내

부 서	일시 및 장소	성 경 말 씀	설 교 제 목	설 교 자
유치부	주일 09:30 경동어린이집	창세기 11:8	바벨탑 이야기	이동환 전도사
어린이부	주일 09:30 장공채플실	창세기 11:1-9	바벨탑 이야기	최고권 전도사
중·고등부	주일 09:30 여해문화공간	창세기 11:1-9	바벨탑 이야기	김민정 목사
경청(청년)	주일 14:00 장공채플실	우리가 쌓아올린 바벨탑		박선교 목사
화요일아침기도회	화요일 10:00 소예배실	여신도중보기도회		
금요기도회	금요일 19:30 미래를 여는방	생명평화기도회		

수 요 예 배 (9월 11일 본당)

	아침예배(오전 11시)	저녁예배(오후 7시 30분)
인도 오르가니스트 찬양	박나혁 목사 권정원 집사 다함께	배영호 목사 권정원 집사 다함께
송영	오르가니스트	노아콰이어
예배부름	인도자	
찬송	14장(주 우리 하나님)	592장(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알리는 말씀	인도자	
기도	강여옥 권사	조현군 집사
성경봉독	시편 131편	룻기 1:1-5, 16-22
특송	-	만물아 감사찬송 부르자(Katherine K. Davis) 노아콰이어(지휘: 박수길 장로)
설교	‘가장 큰 사람’ 박나혁 목사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배영호 목사
찬송	278장(여러 해 동안 주 떠나)	445장(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축도	목사	
후주	오르가니스트	

다음 주일 말씀

9월 15일(창조절 셋째 주일)

성 경: 구 약(예레미야서 4:11-12, 22-28)

서신서(디모데전서 1:12-17)

복음서(누가복음서 15:1-10)

설 교: ‘끝없이 참으시는 하나님’, 채수일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2019년 한가위 감사절 가정예배

생명의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 | 김명숙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장충동 1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한가위 감사절 가정예배 순서

예배 부름

인 도: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회 중: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께에서 온다.
 인 도: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회 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인 도: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네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회 중: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인 도: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네 생명을 지켜
 주실 것이다.
 회 중: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실 것이다(시편 121편).

찬송

301장(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함께
 1절 지금까지 지내온것 주의크신 은혜라
 한이없는 주의사랑 어찌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손이 항상살펴 주시고
 모든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절 몸도맘도 연약하나 새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애나 험한산길 헤멜때
 주의손을 굳게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절 주님다시 뵈올날이 날로날로 다가와
 무거운짐 주께맡겨 벗을날도 멀잖네
 나를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공동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가위 아침 온 가족이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봄에는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우리들의 수고와 애씀
 에 소득이 있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다시금 풍성한 삶의
 결실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있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십시오. 명절 이 아침, 조상들의 믿음의 유지를
 기억하며 부모, 형제, 자녀 그리고 이웃과 평화하며 나누고 대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과 삶이 자라나,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나라와 겨
 레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
 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미,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네 상에 둘러앉은 네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딸 손자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에 평화가 깃들기를!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 인도자

시편 128편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위에 서야 한다는 신앙적 다짐과 함께 그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께 받는 무한 축복을 노래합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선언, 선포합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의 내용이 2절부터입니다.

첫째는,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는다”고 했습니다. 곧 땀 흘려 일한 만큼 소득이 있다는 것입니다. 70년 바벨론의 포로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며 엄청난 세금 부과와 지주들의 부당한 이자에 등골이 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땀 흘려 수고한 보람도 없이 빈손이 된 것입니다. 하여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로소득이나 요행적 이득을 바라지 아니 할진데,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한대로 그 대가와 소득을 얻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둘째는, 가정의 화목입니다. 가정의 구성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그 관계를 시인은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올리브 나무 같다”(3절)라고 노래합니다. 우선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은 아내란 곧 생명의 창조를 이루는 현숙한 여인을 말합니다. 현숙함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하일’인데 ‘담대함’, ‘지혜로움’, ‘강함’을 의미합니다. 성서에서 현숙함의 이미지는 한 여인의 정숙한 인품과 내적인 마음상태이기 보다는 정중동(靜中動) 곧 조용한 가운데 행(行)하는 모습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신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더불어 어린 올리브 나무 같은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번식력이 좋으며 수명도 길고 열매도 많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요 먹거리입니다. 또한 올리브 기름은 왕과 제사장, 예언자를 성별할 때 쓰일 뿐만 아니라 그 기름을 태워 불을 밝힙니다. 빛을 냅니다. 한마디로 우리들

자녀들이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쳐줍니다. 믿음과 희망과 섬김으로 가꾸어지는 화평의 화원(花園)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전승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가정에 단지 그 세대에 복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약속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녀들을 통한 미래의 희망과 성취로 또 그 다음 약속과 성취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5-6절)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끝으로 “이스라엘에 평화가 깃들기를!”하고 노래합니다. 요컨대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축복을 넘어 사회의 안정과 온 이스라엘의 평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가위 감사절입니다. 한은 ‘크다’,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한해 중 가장 큰 감사절입니다. 풍성한 음식과 놀이, 상호 신뢰와 감사의 인간관계가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하고 덕담을 나눕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를 누릴 때 그 평화는 내 가정과 이웃을 넘어 나라와 겨레 그리고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온 생명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찬송

559장(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다함께

-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님의 기도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